

가출고위험군 중학생 대상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입연구 - 보호요인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진아[†]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출 고위험군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가출예방프로그램 'YES(Youth Empowerment Start) Project'의 개발 및 효과성을 검증한 개입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입연구방법론에 따라, 첫째, 가출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선별기준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구성요소로 추출하여 가출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전반적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요인인성검사Ⅱ,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하여 선별된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 중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한 23명이 실험집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22명이 비교집단으로 할당되어, 표본크기는 총 45명 이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t-검증(t-test), 공변량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으로 통계적 검증력을 분석하고, 집단프로그램 과정기록(Process Recording)을 통한 과정분석과 목표성취척도(Goal-Attainment Scaling) 등을 병행하여 질적인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YES Project'에 참여한 실험집단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종결된 후, 비교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가족응집력' 수준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자신에 대한 신념' 수준에서는 사전사후검사 시 비교집단에 비하여 약간의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YES Project'에 참여한 실험집단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종결된 후, 비교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해 '가출충동' 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YES Project'는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감소하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입연구 결과에 따라서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 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입연구방법론, 욕구조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진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39-769)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삼익APT 103-1005
Tel: 010-5712-8013, Email:12miin@naver.com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과 사회적 부담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가출은 일부 비행청소년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은 더 이상 소수 비행청소년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진 청소년의 탈선문제가 아닌 일반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56.7%, 위기청소년의 80.1%가 ‘가출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청소년의 9.9%, 위기 청소년의 50.1%가 ‘가출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대상의 보편성과 더불어 최근 가출청소년의 양적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청소년가출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이용교, 남미애, 안경순, 2006). 또한 전국 청소년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9)에 따르면, 일반집단(중·고교 재학 중 청소년)과 특수집단(소년원, 가출·학교부적응 등 위기청소년)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일반집단의 가출경험률은 계속 증가추세로 2008년도 일반집단의 12.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특수집단의 73.8%가 가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출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국내 가출청소년의 현황은* 2007년 1만 2,240명으로 추정되어, 2006년 9,390명 보다 1년 사이 30%(2,800여명)나 증가했다(통계청, 2008.5.4).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다보니 발생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통계치는 없으며, 대부분의 조사들이 가출신고 실적이나 청소년쉼터 입소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추세와 현황은 추정치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표본조사연구에 근거해 잠재적 청소년 가출규모를 추정한 자료로서, 김지현 외(2002), 한국청소년상담원(2002)은 가출을 경험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규모를 연간 약 10~15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고(청소년백서, 2007), 유성경과 심혜원(2002)은 중·고등 학생들 중에 약 20~30만 명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의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은 통계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가출청소년의 수를 포함하여 전체 가출청소년의 수를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출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 가출이 증가하여 가출이 만성화되고 있고, 저 연령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무엇보다도 2007년 80개의 전국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753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첫 가출 나이는 13세 이하가 48%나 차지하였고 평균 첫 가출 나이는 남자 평균 13.2세, 여자 평균 14.5세였다. 모든 연령에서는 중학교 1~3학년(14-16세)에 첫 가출을 하였다는 응답이 4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시절이 가출충동이 높은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시절에 첫 가출이 높고 첫 가출 당시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이 74.7%로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출 예방을 위해서는 중학교와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첫 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출 고위험군 학생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가출충동의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완충하는데 유용한 보호요인 강화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화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기에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박민선, 2008). 청소년들의 성매매, 차 털이, 날치기, 강도사건 등 심각한 비행문제가 대부분 가출청소년들의 유희비 및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보도나 가출청소년

* 이는 경찰청 182의 ‘미아가출청소년찾기’에 신고 된 공식 통계 자료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경찰청의 통계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쉼터 입소회원을 분석한 통계를 가출청소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성범죄의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때로는 가해자로, 피해자로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비행 및 각종 범죄가 부모나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가출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남영옥, 2001),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에게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가출 행위 자체가 심각한 비행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일단 집을 떠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번 가출이 재가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하게 된다(김성경, 1998; 김태익, 2000 재인용). 청소년기 가출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기에 유해환경에의 노출로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기회가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0개소 청소년쉼터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가출청소년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중퇴가 가장 많았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는 가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일시적인 보호와 수용 차원의 서비스는 반복되는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으로의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황미경, 1997). 무엇보다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고위험군 일반청소년을 선별하고 사전에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 뿐 만 아니라 연구자가 실천현장에서 상담한 가출청소년 및 일반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욕구조사를 분석하고, 8년 동안 실무적 노하우(know-how)를 근거로 타당성과 효용성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 단계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함으로써,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일반화하는 데에 중요한 시발점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입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선별기준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구성요소로 추출한 가출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참여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보호요인 및 가출충동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본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실천현장에서 일반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요소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가출예방프로그램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출예방프로그램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비교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출관련 보호요인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1-1.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신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1-2.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자기유능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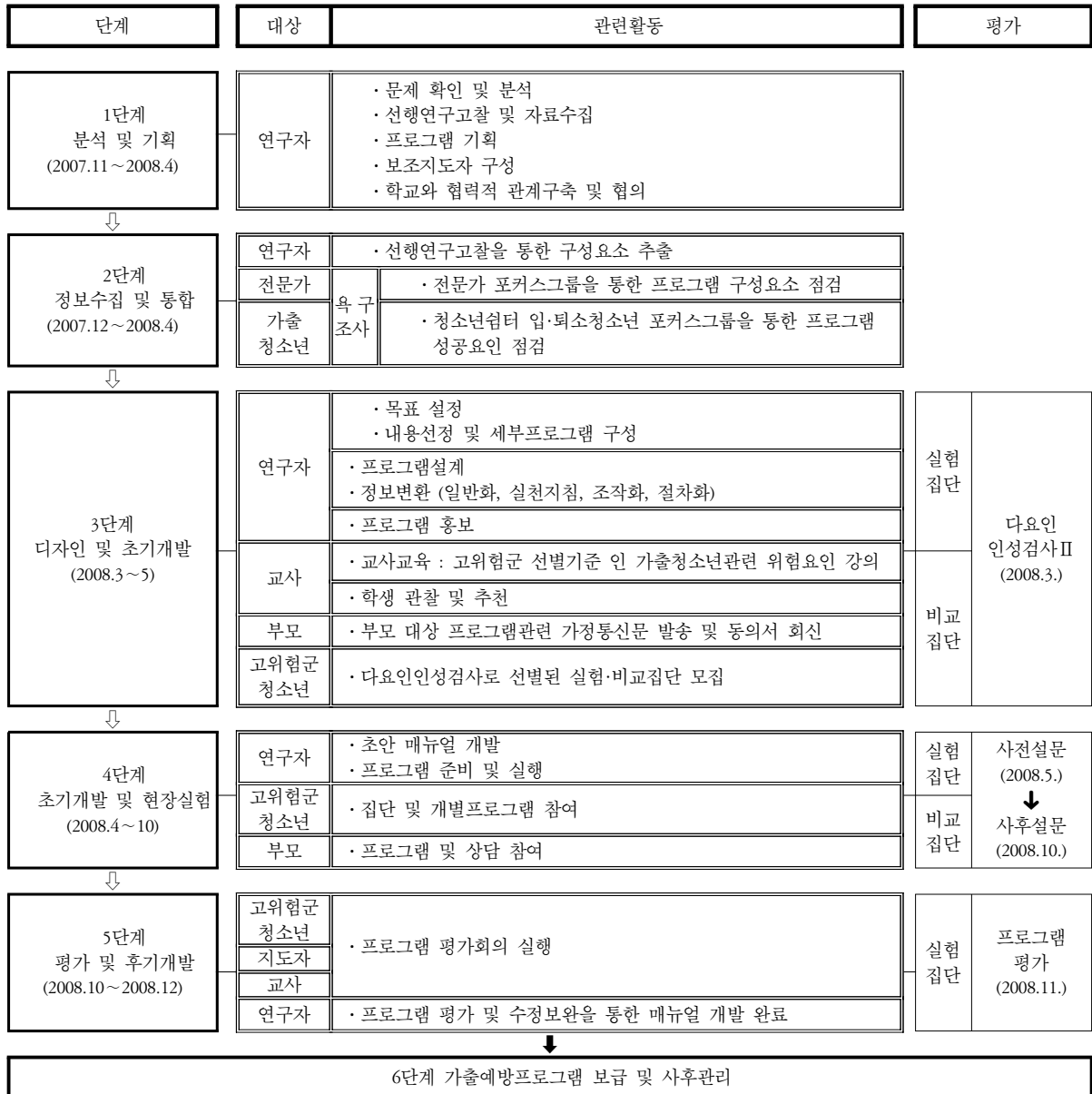


그림 1. 개입연구의 과정

1-3.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내적 통제소재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1-4.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1-5.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가족응집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비교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출충동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의 개발모델은 개입연구(Intervention

Research: IR)*방법론에 따라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1단계 분석 및 기획

(Problem Analysis & Project Planning)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가출관련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 가출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가출의 원인이나 특성연구, 비행요인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환경을 밝히고자 한 것들이 대다수이며, 90년 이후에는 청소년쉼터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이나 입소청소년들의 특성 및 치료의 효과성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신민향, 2001). 이와 같이 대부분 청소년 가출연구가 쉼터 입소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상 표집의 용이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청소년 가출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정부 주관의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에 대한 용역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가출청소년의 위험·보호요인 뿐 만 아니라 가출예측모형, 척도개발 연구, 특히 가출성격이 장기화, 만성화됨에 따라 재 가출 요인, 성공적인 귀가요인 등을 밝히는 연구까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 가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치료 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보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출의 요인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충동이나 실태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청소년쉼터 입소회원 대상 재 가출 예방 및 치료의 효과성 연구 등 사후 대안적 프로그램에 집중되

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외국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가출 고위험군 일반청소년 대상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출예방을 중점으로 다룬 실험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외국의 청소년가출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성(HIV 등)이나 약물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대상 자체의 초점이나 방향성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목적으로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이(장윤정, 1997; 정우영, 1998; 하태완, 1998; 박선희, 1999; 박성자, 1999; 김태익, 2000; 조학래, 2000; 정혜경, 2001; 강성래, 2003; 한상철, 이수연, 2003; 김연정, 2004; 최선희, 2004; 최태은, 2007)진행되어 왔지만, 모든 연구가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Arthur et al., 1997; Garmezy, 1993; Gore and Eckenrode, 1996; Search Institute, 1998; 박현선, 1998; 권지은, 이소희, 1999; 유성경, 안희정, 오익수, 박한샘, 1999; Butcher, 2000;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지승희, 이은경, 2001; 김선희, 2001; 지승희, 2002; 양종국, 2002; Sharkey, 2003; 지승희, 2003; 이애령, 2003)들은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예방프로그램으로 적용시키는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석형, 2006).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호요인 기능에 초점을 둔 많은 선행 연구(Garmezy, 1993; Gore and Eckenrode, 1996; Arthur, et al., 1997; 권지은, 1998; 김장대, 1998; 박현선, 1998; Pollard, Hawkins and Arthur, 1999; Butcher, 2000;

* 최근 개입연구방법론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개입의 결과와 평가에 초점을 둔 반면, 개입연구방법은 실천을 위한 조사, 설계, 검증, 평가의 체계적인 형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실천모델의 형성을 강조(홍순혜·이시연, 2007: 15~16)하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부족한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하다. 개입연구는 ① 분석 및 기획, ② 정보수집 및 통합, ③ 디자인, ④ 초기개발 및 현장실험, ⑤ 평가 및 후기개발, ⑥ 보급 및 사후관리의 6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개입연구의 강점은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각 단계의 관련활동들은 다른 단계의 활동들과 중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시간 중복적 특징을 갖는다(홍순혜·이시연, 2007: 34~36).

Sameroff, 2000; Werner, 2000; 유성경 외, 2000; 김선희, 2001; 양종국, 2002; Sharkey, 2003; 이애령, 2003; Corapci, 2004; 이석형, 2006)들은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개입 개발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한다. Leshner(1999)와 Carlson(2001)도 많은 위험요인들이 편재해 있고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에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 보다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개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문제행동간의 관계연구의 결과, 보호요인이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완충하고(Rutter, 1987; Jessor et al., 1995; 이선경, 1997; Fraser, Richmen, & Galinsky, 1999; Kalil & Kunz, 1999; 이석형, 2006: 39), 보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김선희, 2000; 김정만, 2001), 보호요인이 문제행동과 위험요인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자(moderator)역할을 통해서, 이후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중요한 예측원으로 작용하였다(지승희·이은경, 2001; 박지아, 유성경, 2003). 본 연구에서는 Selman et al.(1992)의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한상철(2001)이 일부 수정한 ‘가출 위험행동의 발달모형’과, 정혜경과 권혜진(2001)이 가출의 구성개념으로 개인·가정·사회환경 요인을 제시한 ‘가출에 대한 개념적 모형’ 그리고 현은민(2000)이 중재변인으로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을 제안한 이론적모형을 토대로, 한상철 외(2003)이 제시한 ‘가출 위험행동의 설명모형’을 이론적 모델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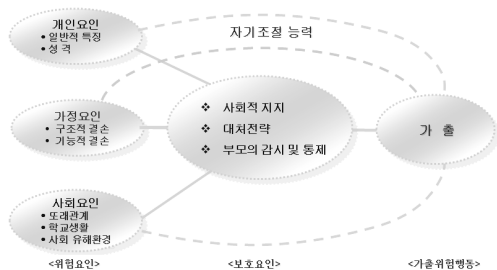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가출 위험행동의 설명모형 (Selman et al., 1992; 한상철 외, 2003)

이 모형에 의하면, 보호요인은 가출행동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완충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충동의 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가출을 결정한다기보다 이러한 요인들이 가출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대인협상전략, 신념체계,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등을 포함하는 보호요인의 중재에 의해 가출행동이 결정된다(한상철, 2001). 따라서 보호요인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 즉 초인지(metacognition)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위험요인과 가출을 중재하고(한상철 외, 2003) 위험요인의 수준을 중화하고 상쇄하기 때문에(Garmezy, et al., 1984; 김연정, 2004), 가출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입전략은 직접적으로 보호요인을 강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 보호요인의 발달을 유리하게 수정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Masten, 2001). 무엇보다도 자기조절능력은 선천적이기보다 다분히 후천적이며, 교육·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실천적합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행동 선택과정에서 주관적인 확신준거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한상철 외, 2003), 구조적결손 보다 기능적결손이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부모의 감시 및 통제가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모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2단계 정보수집 및 통합 (Information Gathering & Synthesis)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구조, 구성요소, 목표, 내용, 운영, 전반적인 실천지침 등의 타당성 및 효용성을 높이는 구성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정보수집 및 통합과정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 활용한 정보의 유형은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단행본, 각종 워크샵 자료집 및 매뉴얼, 통계자료 등 이며, 육구조사를 위해서 청소년 컴퓨터 입·퇴소 가출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을 각각 운영하였다.

이론적 배경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Richard et al., 1995; 유성경, 심혜원, 2002), 보호요인이 가출의 위험요인과 가출행동 사이 관계를 완충 작용함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로부터 밝혀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가출은 개인·가정·학교·친구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지만, 환경차원은 대부분 통제 불가능한 위험요인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가출관련 통제 가능·불가능한 위험요인을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 선별기준으로 활용하고, 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던 선행연구(Reilly, 1977; 기백석, 1980; Roberts, 1987; 지창희, 1987; 나철, 1992; 김양희, 1996; Booth & Zhang, 1996; 장종욱, 1997; 김지연, 1998; 하태완, 1998; 정혜경, 2000)와 같이, 위험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개인·가족차원** 보호요인을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추출하였다. 첫째, 김영환과 방승규(1976)는 청소년이 비록 환경이 부정적 일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가출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긍정적인 자기개념(self-esteem)의 중요성을 밝혀내었다(정혜경, 2000). 또한 여러 연구자(Jessor, 1993; Jessor, Van Den Bos, Nanderryn, Costa, & Turbin, 1995; 이석형, 2006)들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중 하나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보호요인으로서 기여도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행동과 관련하여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은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며(Bandura, et al., 2003; 한상철, 김남선, 이수연, 이미연, 최성열, 2005), 비행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dwig & Pittman, 1999; 한상철 외, 2005). 또한 Hamill(2003)은 청소년의 자기유능감과 스트레스대응 연구에서, 자기유능감이 유연한 적응집단과 부적응적 집단을 구별해 주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가출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 가출을 하게 되지만, 내적통제력(locus of internal control)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내적통제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박성수, 1991; 김남성, 1995; 김두섭, 민수홍, 1996; 한상철 외, 2005). 내적통제력은 청소년에게 고위험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Luthar, 1993), 탄력성발달에 기여하는 주요요인이다(Grossman et al., 1992; Valentine & Feinauer, 1993; Werner, 1995; Cappella & Weinstein, 2001; 이상준, 2006). 넷째, 가출청소년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Social problem solving)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신민향, 2002; 주정선, 2003). Roberts(1982)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은 불충분한 문제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 가출청소년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을 잠자기, 울기, 알코올이나 약물로 돌리기, 자신들의 삶의 주요요소들에 대해 망각해 버리기,

* 포커스그룹은 질적연구 형태로서 초점을 맞춘 집단토의를 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Capko and Anwar(1998)은

포커스그룹을 질적 연구방법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으며, Morgan(1995), Ford, Bach, and Fortler(1997), Morgan and Krueger(1998), 박형원(2004: 45), 이시연·최윤정·권현진(2006: 323)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가 활성화되고, 언어적 표현이 자극되고, 주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강점을 제시하였다.

* 김진아. 2009. 가출 고위험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p.9~81 참조.

** 윤옥현(2007)은 청소년쉼터 및 보호관찰집행 중인 82명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처음 가출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87.8%로, 가족형태별로는 정상가정이 42.7%로, 가정경제 수준별로는 중수준이 37.8%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론 가정 뿐만 아니라 정상가정의 청소년들에게도 가출의 문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본다. 또한 가출의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및 부모의 불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청소년 가출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이 44%, 부모에게 있다 36%로 높게 나타나 개인 및 가족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근거가 되었다.

자해시도 등의 행동을 드러내었다. 모든 이러한 대처전략은 문제에 대해 직면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옮겨버리는 것을 포함한다(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재인용). 구현지(2003)에 의하면 문제해결기술훈련은 대인 관계적 문제상황에서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많이 생각해 내고, 그 중에서도 적절한 해결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해내어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인 비행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이성, 2006). 또한 한상철(2001)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완화시키고 실제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적극적 대처전략 지도를(Unger et al., 1998) 제언하였다. 무엇보다도 계획적인 문제해결기술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출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Anthony, 1987; Ford, 1992; 양종국, 2002). 다섯째, 가족의 응집력은 가족의 친밀감 또는 가족 지지(family support)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족성원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족이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지지를 통해 자녀의 가출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가능케 한다(이석형, 2006). 남영옥(2001: 160)이 비 가출청소년 158명과 가출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인 부모-자녀 결합형태(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측정도구로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관련되고, 이러한 성격특성은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Amato, 1986; Demo, 1992; 박현선 외, 1997; 김용석 외, 2000), Kogan(1980)은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가족 지향성과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가족응집력이 낮다고 밝혀내었다. 가족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혹은 위기관리의 형태로 부모의 따스한 돌봄과 기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비난하지 않는 양육방식,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 가족응집력은 청소년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보호요인이다(이해리, 2007). Constantine & Benard(2001)는 가족 간의 대화와 가족 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의존성 조장 태도, 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여 알아본 연구(남영옥, 1999; 남영옥, 2001)에서는 애정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억제하고자 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Young 등(1993)은 부모의 적극적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의 경우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지각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와 가정 내 성원들 상호간의 지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한상철, 2001). 여섯째,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도록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Cohen & Hoberman, 1983; 한상철 외, 2005). 가출청소년들은 생활사건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있어 이들을 지지해줄 환경적 자원이 없으며 가출행동이 유도되는 과정에서의 적응자원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Roberts, 1987; 나동석, 이용교 역, 1991). 이현지(2005)는 청소년기 가출경험이 있었던 18명의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출 후 가정으로의 복귀와 적응에 관한 보호요인의 탐색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체계로부터 지지와 보호의 필요성(Garmazy, 1983; Whitbeck & Simons, 1990; 남미애, 1998)을 제시하였다. 가출고위험군 청소년들은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출충동이 높은 상태로, 가출충동 수준이 자신이 설정한 가출에 대한 주관적 확신준거를 초월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대처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Levitt & Selman, 1996; 한상철 외, 2003).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클라이언트 집단 욕구조사*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구조사로 부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분석하는 방법인, 가출청소년 포커스그룹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성요소 추출 및 내용의 탐색작업을 보완하였다. 포커스그룹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 2003년 부터 2007년에 퇴소회원 중 사후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출청소년 및 2007년 12월~2008년 5월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중 총 52명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욕구조사를 총 9회에는 걸쳐서 실시하였다. 진행 장소는 청소년쉼터의 회의실이었으며, 시간은 개별 및 집단에 따라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까지 진행되었다. 진행 및 기록은 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사전에 참여 대상자들에게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토의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면접방법은 자신이 가출 전 가출충동을 느끼는 상태를 회상하면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나 친구, 선·후배의 가출경험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욕구조사의 내용은 가출충동을 느끼는 이유나 상황, 가출행동의 동기, 가출예방프로그램 지도자의 역량,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지원이 필요한 요소 등 이다. 질의에서 나온 내용들 중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개방코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자기인식 훈련, 문제해결기술훈련, 부모-자녀 간 대화기술훈련의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개별상담이나 멘토링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출충동의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가상 가출체험활동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과거 비행과 가출경험에서 후회하는 것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해주시길 원했다. 넷째, 지도자 성별에 따른 장·단점으로는 보조지도자가 성이 다른 경우 호기심으로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성인 경우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기법의 상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

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규범적인 욕구 인 전문가 포커스그룹방법을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참여자는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집단, 즉 청소년쉼터 및 지원센터 실무자인 현장 전문가 8명과 연구자인 교수 1명으로 총 9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에게 포커스그룹의 목적과 운영지침을 소개하고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은 2007년 12월과 2008년 5월에 각각 포커스그룹 모임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진행 장소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 룸과 청소년쉼터 회의실이었다. 사전에 배포한 초기개발 계획안과 질문목록을 토대로 질문하면서 부가적으로 기록해야

* 표적인구 욕구조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욕구나 표현된 욕구를 파악하여 현재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는 질적 조사방법이다(황성철, 2006). 클라이언트 집단의 심층적이고 잠재된 욕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되며, 주제가 분명하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서로가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게 되고 집단의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다(Krueger, 1994; 심창교, 2008: 42). 표적인구 욕구측정조사방법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 문제,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사결과의 타당성이 높고, 다른 욕구조사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성규탁, 1993: 37참조).

** 현장전문가인 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는 규범적인 욕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방법이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특정 지역사회의 문제나 집단적 욕구를 잘 알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황성철, 2006).

표 1. 포커스그룹 질문목록 구성

영역	하위유형	설문형식
지도자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개방형 문항
가출예방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	내용적절성 예/아니오로 평가 내용의 추가, 보완, 수정의 의견 기록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구성요소	프로그램 내용기반 인 구성요소는 적절한가?	
	프로그램의 구조는 어떠한가?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성요소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효과적인 세부 운영지침은 무엇인가?	

할 내용을 첨가하는 반구조화 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한 질문목록 구성은 표 1과 같다.

포커스그룹은 표 1에 따라 ‘주·보조지도자의 역할과 특성에 따른 장·단점, 필요한 역량,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구성요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프로그램 실시 횟수와 진행시간, 프로그램 내용의 유용성, 진행방식 등’을 구체화시키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지도자는 소집단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 및 멘토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개발 프로그램의 대부분 구성요소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 가출예방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셋째, 구조는 각 구성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되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소그룹 운영의 강화 및 개별적인 개입의 병행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구성요소 중 가족차원의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이 강조되었으며, ‘역할극’과 ‘영상편지’를 UCC로 제작하여 부모교육 시 상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집단 및 전문가집단의 욕구조사 결과를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3단계 디자인 및 초기개발

본 프로그램명은 YES(Youth Empowerment Start) Project로, 전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일반화, 실천 지침, 조작화, 절차화하는 정보변화의 프로그램 설계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homas(1984)가 제시한 인간 서비스 분야의 개입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하는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홍순혜, 이시연, 2007).

첫째,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체계가 가져야 하는 디자인 조건은 ‘가출충동의 통제가능·불가능한 위험요인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차원의 보호요인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가출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단계적 과정은 위험요인에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Rutter, 1987; 이석형, 2006) 가출행동예방에 기여해야만 한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전제는 위험요인을 가진 청소년은 가출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위험요인을 가진 모든 청소년이 실제로 가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Leone, Walter, & Wolford, 1990; 안창규 외, 1995), 보호요인을 가진 청소년은 가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이는 보호요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출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개발모형은 그림 3과 같이, 개인 및 가족차원의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가출충동을 감소하는 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의 일반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가출고위험군 선별기준이 되는 위험요인*을 1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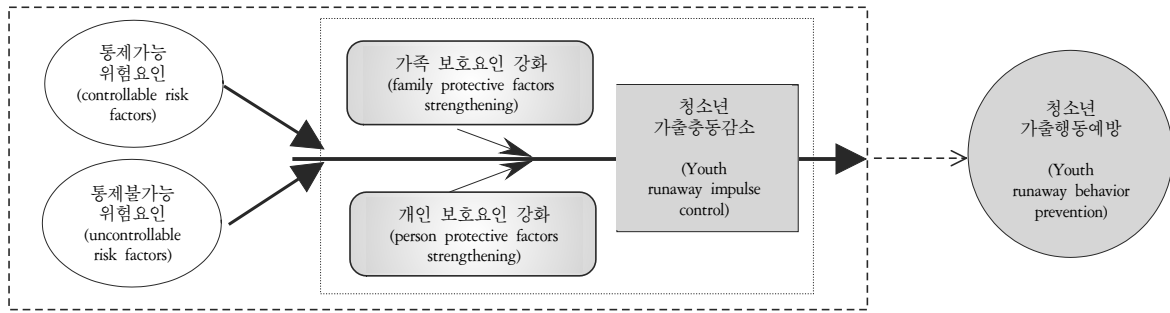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발모형

표 2와 같이 대상 선별기준을 29가지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가출은 개인·가정·학교·사회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김지현, 1996; 하순인, 1997; 김태익, 2000), 가출이라는 사건

을 발생시킨 개인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가출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정·학교·사회적 환경을 포함시켜야 한다(안창규 외, 1995)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가출관련 위험요인’

표 2. 청소년 가출 고위험군과 관련 위험요인에 따른 대상 선별기준

차 원	청소년 가출 고위험군과 관련 위험요인	대상 선별기준
개인차원	자아존중감 및 자기유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유능감 • 공격·충동성 • 낮은 내적통제능력 • 낮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정신건강문제	
	충동성 및 외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대처능력)	
가정환경차원	가족 구조적 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별거 및 재혼 • 부모의 사별 • 부모의 가출 • 낮은 경제수준(빈곤 등) • 부모의 실업 • 부적절한(방임적·과잉적) 애착수준 및 양육태도 •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 • 가족성원간 유대감 및 애착결여 • 부모 간 갈등 • 부모-자녀 간 갈등 • 형제·자매 간 갈등 • 부모의 학대
	가족 구성원 결손	
	사회 경제적 수준	
	가족 기능적 역기능	
	훈육방식 가족성원간 응집성 학대문제	
학교환경차원	학교 적응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결석의 횟수 •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 • 교사에 대한 태도 • 청소년-교사간의 부정적 관계 • 교사에 대한 낮은 애착 • 학교성적 • 학습과 관련된 동기화의 결여 • 학습부진 및 낮은 성적
	교사에 대한 태도	
	학교성적	
또래집단차원	비행(가출)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가출)친구의 수 • 비행(가출)친구와의 친밀도 및 접촉정도 • 이성친구 유무 • 성관계경험 • 따돌림·왕따문제
	이성친구	
	부정적 또래압력	
사회환경차원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활동 참여 유무 • 아르바이트 지속성 여부

* 4)의 참고문헌. pp.29 ~ 56 참조.

표 3. 보호요인 강화 가출예방프로그램 구성요소

보호요인	가출예방프로그램 구성요소
• 대처전략	• 긍정적인 자기개념 · 자기유능감 · 내적통제력 ·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 부모의 감시 및 통제	• 가족응집력(적절한 애착수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기술, 합리적인 양육태도)
• 사회적 지지	•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지지
• 가출에 대한 확신준거	• 가출 후 부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문제점 인식 • 가출충동상황에서 관리기술 및 대인협상전략(탈 중심화능력과 대인관계의 문제해결능력) • 가출하지 않아야하는 주관적인 가치·태도·동기

이란, 청소년의 개인·가정환경·학교환경·또래집단·사회환경 차원의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위험요인으로 개념화하며, 표집 시 ‘자아존중감 및 자기유능감, 공격·충동성, 내적통제능력,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부모의 이혼·별거 및 재혼, 부모의 사별, 부모의 가출, 경제수준, 부모의 실업, 애착수준 및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성원간 유대감 및 애착, 가족성원간 관계, 학대, 무단결석의 횟수, 학교에 대한 애착, 청소년-교사 간 관계, 교사에 대한 애착, 학습과 관련된 동기화, 학습수준 및 성적, 비행(가출)친구의 수·친밀도·접촉정도, 이성친구, 성관계경험, 따돌림·왕따, 아르바이트활동 참여 및 지속성’요인을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되는 청소년 가출관련 보호요인*은 선행연구 검토를 근거로 4개 범주의 보호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표 3과 같이 7가지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가출관련 보호요인 중 개인차원으로는 자기유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긍정적자기개념(self-esteem), 내적통제(Self-control),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ocial Problem Solving)과 가족차원으로 가족응집력(적절한 애착수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기술, 합리적인 양육태도), 사회차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등을 구성요소로 추출하였다. 또한 가출에 대한 확신준거는 Selman(1992)의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모님과의 가출충동 상황에서 관리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가출하지 않아야 하는 주관적인 가치·태도·동기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출관련 위험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개인·가족차원의 가출관련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가출충동을 감소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고자 한다.

4단계 초기개발 및 현장실험(Early Development & Pilot Testing)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개인·가족차원의 보호요인강화를 위한 가출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을 운영하였다. 또한 Northen(1969) 5단계 이론(남세진, 조홍식, 1998)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용 및 운영지침을 체계화하였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개입은 부모의 역할과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행연구(현은민, 2000; 김동기, 홍세희, 2007)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전화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모교육은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를 활용한 의사소통훈련과 한국 청소년상담원(1999)에서 개발한 ‘청소년 가출·재가출예방 부모용 지침서’를 활용한 자녀의 가출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 4)의 참고문헌. pp. 57~75 참조.

표 4. 보호요인 강화 가출예방프로그램 내용

집단발달단계	주 제	시 간	차원	구성요소	세 부 내 용	준 비 물		
준비 단계	1회기 5/24 · 5/29	오리엔테이션	개인 차원	지식	-	사전설문	설문지, 명찰, 카드	
						오리엔테이션	-	
	나와의 약속	16:00	개인 차원	지식	-	“오늘나의기분은” 출석판	출석판	
						Ice - Breaking	· 붙여?붙여! · 라이어라이어 · 혼자왔습니다 · 고리를풀어라	스티커, 껌, 크레커, 겨자, 박스, 콜라, 간장, 종이컵, 소금, 물, 음악CD, 노트북
						자기평가서	타임캡슐 ‘나의 기대’	시트지
오리엔테이션 단계	2회기 5/31	MMTIC를 통한 긍정적인 자기인식	개인 차원	지식/관리 기술	긍정적인 자기개념 ·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워밍업 (want & need)	want&need 카드	
						MMTIC 오리엔테이션	판넬, 시청각자료	
						MMTIC 검사 및 채점	MMTIC검사도구,결과표	
						MMTIC 지표설명 및 결과발표	채점판, 지표안내지	
						MMTIC 유형별 Group작업 · 조별칭, 상징그림, 성격의 공통특징 · 가출충동을 느끼는 갈등상황 : “엄마-나”차이 이해하기 · 가출충동극복방안 논의 · 인생의 좌우명 및 우리의 각오	유형별안내지, MMTIC자료, 전지, 싸인펜, 판넬, 시트지	
						유형별 Group발표		
탐색과 시험의 단계	3회기 6/21	가출예방 교육	개인 차원	지식/태도 동기	가출 후 부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문제점인식	빈디게임	색깔 스티커	
						가출위험요인 앙케이트 조사	앙케이트 판	
						청소년쉼터 소개	동영상자료, 노트북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사례소개	소개자료 등	
			가족 차원			가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토론	전지, 색깔매직, 시트지, 스카치테이프	
						“내가 가출한다면”가출 손익계산표		
						우리 집에서 나타난 “공룡사냥”	포스트잇, 펜	
						Role-Play “가출할까?안돼!결심했어” : 부모님과과의 갈등상황	시트지, 소품	
4회기 6/28 · 8/9	“Family” 조각하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13:00	가족 차원	가치태도 동기	의사소통훈련	언어의 양면성 (you are what you say)	시트지	
					자기유능감	신체분뜨기 · 버리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것 · 몸에 대한 명상 · 자성예언	전지, 음악CD, 싸인펜, 크레파스, 자성예언목록	
						가족응집력	동물 가족화	시트지, 풀, 가위, 동물사진, 잡지, 스티커
		요술상점	도화지, 싸인펜					
		주인된 “나와 가족” 창조선언	시트지					
		문제해결 단계	5회기 7/12 · 7/17		럭셔리한 방법으로 말해요	개인 차원	관리 기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능력
“올바른 의사소통법” PPT강의	PPT자료, 빔, 노트북							
‘럭셔리한 방법으로 말해요’공트 : 부모님과과의 가출충동상황	공트용인형, 극본, 자료, 싸인펜, 테이프							
6회기 7/19	가족선물 코너 & 가출 청소년 인터뷰		10:00	개인 차원/가족 차원	가치태도 동기/관리 기술	가족응집력	‘가면을 열면 열수록 보인다’	뽕튀기
							갈등관계의 부모님 선물작업(T셔츠)	면티, 염색물감, 파레트
		13:00			가출에 대한 사실적 지식 및 이해	갈등 가족에게 카드작성	카드, 선물봉투	
						“가출청소년” 인터뷰	질문목록	

7회기 8/13	강남VJ 특공대 I	13:00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지식/ 가치 태도 동기/ 관리 기술	가출에 대한 사실적 지식 및 이해	“우리 가족 나무” WeCC란 OT? 팀별mission 토론 ①팀: 가출의 문제점 ②팀: 부모님과 가출충동상황 시 관리기술 ③팀: 가출하면 안 되는 나만의 이유 만들기	Story Board, 비디오카메라, 가출손익계산표, 싸인펜, 시트지, 동영상파일, 빔, 음악CD
		16:00			가출충동 시 부모님과 관리기술	Story Board 작성 및 촬영준비	
8회기 8/23	강남VJ 특공대 II	11:00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지식/ 가치 태도 동기/ 관리 기술	가출에 대한 개인적 가치 ·태도·동기	“가출충동해결 vs 가출”WeCC촬영 “맘대맘(Mam vs Mind)”영상편지촬영	Story Board작성본, 비디오카메라, 시트지
		17:30			가출 후 부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문제점인식	팀별 놀이활동	
9회기 9/5	가출예방 행사	15:00	개인 차원	지식	가출 후 부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문제점인식	가출예방캠페인(out-reach) 상담 참여 (게시물팀, 양케이팀, 이벤트팀, 상담팀)	시트지, 전지,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전시물,이젤, 책상, 의자, 성교육·폐실험도구
		17:00			가치 태도 동기	내가 좋아 하는 것 & 내가 잘 하는 것	
10회기 9/20	자기 통제훈련	13:25	개인 차원	가치 태도 동기	내적통제력	WeCC&영상편지 시사회 풍선게임 “문제해결전략” PPT강의	동영상자료, 노트북, 빔 풍선, 싸인펜 PPT자료
		15:10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향상	뚜껑은 언제 열리나?!	
11회기 10/16	부모교육 I	13:00	가족 차원	지식/ 가치 태도 동기/ 관리 기술	가족응집력	“우리 자녀의 마음열기” P.E.T교육 및 토론 오렌지나누기 “내 자녀 가출예방프로그램” WeCC&영상편지 시사회	자료집 ※외부강사초빙 오렌지 자료집 노트북, 빔, 동영상자료
		14: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훈련	win-win game “나의 자녀에게 편지쓰기” 부모 개별상담	
12회기 10/18	자기 유능감 UP	13:00	개인 차원	관리 기술/ 가치 태도 동기	자기유능감	카드전달 및 자녀 개별상담 (부모의 입장 전달) 감정 스피드 퀴즈 나만의 브랜드 파워 만들기 내 인생의 메뉴얼 제작하기 “나도 잘 할 수 있어!” 동영상 상영 칭찬 실 뜨개질 릴레이 시간관리 ‘단하나의 선물’동영상 상영	부모가 작성한 카드 시트지, 색A4용지, 전지, 크레파스 PPT자료, 빔, 노트북 동영상자료 털실 PPT자료 동영상파일
		16:00			가출에 대한 확신준거수립	“가출금지” 선서식 평가회 및 시상식	

방 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로서, 실험집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동일 비교집단 전후비교 조사설계(non-equivalent comparison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들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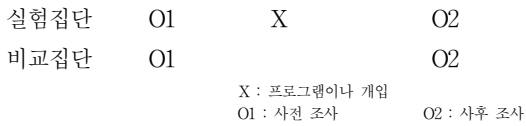


그림 4. 실험설계 연구의 분석틀

연구대상 선별을 위해서 A중학교 2학년 전교생집단을 대상으로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5단계 표본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각각 사전-사후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연구대상

첫째, 표본선정절차 및 기준은 1단계로 2008년 3월 강남구에 위치한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전교생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요인 인성검사 II」에서 가출 고위험군 및 잠재위험군 학생을 선별하였다. 2단계로는 교사교육에서 가출고위험군 선별 기준이 되는 가출의 위험요인을 교육 후 담임교사가 1개월간 관찰평가를 통해서 추천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출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관찰 평가하도록 한 것은 교사가 학생의 전인격적인 포괄적 사정이 가능한 전문가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3단계로는 추천학생들을 소집하여 본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4단계로는 부모대상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동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동의과정을 진행하였다. 5단계로 모집 및 선발과정의 최종 참여결정은 선별된 전체 학생 중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한 학생을 실험집단으로, 비참여자를 비교집단으로 할당하였다. 개입의 수준은 선별된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표본크기는 실험 전 실험집단 24명, 비교집단에 23명을 할당하였으나, 분석 시 실험집단23명, 비교집단22명이 활용되어, 전체 표본크기는 총 45명이었다. 실험집단에서는 종결 시 1명의 전학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발생하여 23명만이 사후검사에 응답하였고, 비교집단에서는 23명 전원이 사전-사후검사에 응답하였지만, 분석에서는 체계적 오차(systematic bias)로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한 22명이 활용되었다. 비교집단 1명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총 95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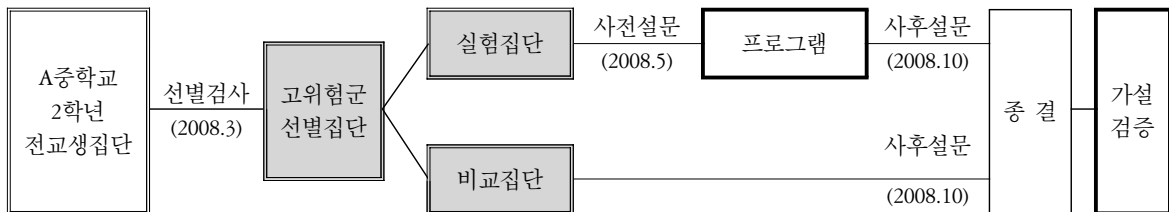


그림 5. 연구의 전체과정

* 보호요인은 위기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아주 낮은 위기수준이거나 위기가 없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Rutter, 1990; 이선경, 1997: 28). 그러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가출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을 표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척도문항 중 83개 문항에서 극단의 값은 피하고 가운데 값만 응답하는 고정반응(response set)을 나타내 내적 타당도 저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가출충동 위험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개인 및 가족차원의 가출관련 보호요인과 가출충동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하위문항으로 가출충동 경험, 가출시도, 가출의 원인 및 책임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여서, 전체 사전사후 조사도구는 총 8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에 대한 신념

김태익(2000)이 개발한 가출예측척도 문항 수는 개인요인 10문항, 가정요인 12문항, 학교요인 7문항, 사회요인 3문항으로 총 32문항이며, 5점 리커트(Likert)척도이다. 가출충동 미경험집단과 가출 경험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가출에 중요한 예측변수는 가족관계, 가정생활스트레스, 자신에 대한 신념, 학교생활스트레스, 가정경제의 수준, 교사에 대한 태도의 6개 요인으로 두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는 93.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예측척도에서 개인요인 중 ‘자신에 대한 신념’차원의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816으로 나타났다.

자기유능감

Hernandez(1993)가 사용한 유능감척도와 Sherer et al.(1982)가 제작한 자기유능감척도,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척도 중에서 박현선(1998)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6문항을 선정하여 활용한 문항으로, 30명

의 전문가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수립하였고, 공변량구조분석의 측정모델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체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가족관련, 환경적 위험 및 보호요인들의 타당도 계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4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753으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소재

Alva(1989)가 개발한 청소년 대처척도(YCS: Youth Coping Scale)에서 박현선(1998)이 학교영역에서의 계획성, 학교·가정·또래 영역에서의 책임감, 학교에서의 내적통제소재 하위 척도 문항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17문항 중 내적통제소재 차원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과업수행이나 성취여부의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내적통제소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72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Maydeu-Olivares and D'Zurilla(1999)의 사회적 문제해결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척도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하여 엄태완(2004)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 보완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 충동·부주의 반응양식, 회피 반응양식 등의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요인3 긍정적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은 건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문

제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관련된 4문항(22,9,5,14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4 부정적 문제지향(NPO: negative problem orientation)은 문제를 행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스스로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6문항(20,29,12,21,7,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1 합리적 해결기술(RPS: rational problem solving)은 건설적 문제해결 차원으로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10문항(23,24,8,15,13,11,4,19,26,17)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척도(RPS)는 다시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4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지며, PDF는 문제정의의 공식화하는 기술, GAS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성하는 기술, DM은 의사결정기술, SIV는 해결책이행 기술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5 충동/부주의 반응양식(ICS: impulsivity/carelessness style)은 역기능적 문제해결 패턴으로서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한정적이며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불완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5문항(25,3,27,18,2)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요인2 회피 반응양식(AS: avoidance style)은 역기능적 문제해결 패턴으로서 해결을 미루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며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4문항(10,6,16,28)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요소들은 총 2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엄태완(2004)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8534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895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

David H. Olson, Joyce Portner and Lavee(1985)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Ⅲ를, 한국의 가족문화에 맞도록 전귀연(1993)이 번안하고, 김미애(1997)가 아동·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FACESⅢ는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개 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2문항), 가족의 지지(2문항), 가족원간의 경계(2문항), 가족 공동시간(1문항)과 친구관계(1문항) 및 가족의 흥미(1문항),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2문항)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력이 밀착된(enmeshed)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점수에 따라 과잉분리(1~29점), 분리(30~34점), 연결(35~39점), 밀착(40~50)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력 차원의 1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원척도의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77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92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출충동

남영옥(2001)이 김만두(1982)가 분류한 청소년의 가출유형에 근거하여 총 23문항을 만들고, 이를 요인분석 하여 최종적으로 3개(목표지향형, 축출형, 부모이탈형)의 하위요인으로 추출한 1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가출충동유형 중 목표지향형(요인1: 4,5,3,2,7,6번)은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달성하기 힘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 축출형(요인2: 13,9,8,10번)은 자기 스스로 집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내쫓김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에 갖는 충동, 부모이탈형(요인3: 12,11,1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 불안을 피해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싶을 때 느끼는 충동이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288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사전검사 시 .908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일반적 사항은 성별, 출생일, 가족형태, 종교,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 성적으로 구성하였고, 가출 충동 및 태도는 남미애, 홍봉선(2007)이 『가출청소년 실태와 청소년쉼터 발전방안』에서 사용한 설문, 서울YMCA(1998)의 청소년 가출실태 설문을 토대로 하였고, 개인요인은 안창규 외(1995)의 검사지를 장윤정(1997)이 수정·보완한 설문과, 김민정(1998)이 수정·보완한 설문과, 가정·사회·학교요인은 이유경(1998)이 사용한 설문을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분석방법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 5와 같이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모두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교차검증(triangulation) 하였다.

표 5. 양적·질적 연구의 평가도구

구 분	결 과 평 가	과 정 평 가
양적평가	① 사전-사후 설문지 ② 학생 및 지도자 전체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① 회기 만족도 ② 학생 및 지도자 전체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질적평가	① 자기평가서(GAS) ② 학생 및 지도자 전체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① 집단프로그램 과정기록 ② 팀원관찰평가서 ③ 회기 만족도 ④ 학생 및 지도자 전체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양적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연구자의 실천현장에

서의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방향성 있는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사전-사후설문을 통한 효과성 검증 시 단측검증을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error checking)을 거친 후 SPSS 통계패키지(Ver.16.0)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출경험 및 충동수준, 가출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선정편견(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하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집단 별로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검사에서 점수변화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주 효과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적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을 활용하였다.

질적분석

첫째, 자기평가서 목표성취척도(GAS: Goal-Attainment Scaling)*는 준비단계에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서 개별성원이 변화하고자 하는 개인 및 가족차원 각각의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방안 및 자신의 강·단점을 분석해보았으며, 하위목표를 비교해 상대적 중

* 본 연구는 가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따른 부담과 노력은 일반적인 양적 조사에 비해 훨씬 과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분석을 하는데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분포가 아주 심하게 비정규적이지(nonnormal) 않다면, 표본의 크기(N)가 적더라도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Bohnstedt & Knokke, 1994; 김영석, 2003)와 모집단의 분포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표본의 크기가 6 이하일 때는 반드시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근거(정대연, 1997)에 따라 t-검증과 ANCOVA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제안적’(suggestive)임을 밝혀둔다.
**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배경변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통제해야 한다. 단순 t-검증을 통해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사전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 간 차이가 나는 배경변수와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covariates)으로서 통제하면서 치료조건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ANCOVA를 사용하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분석을 할 수 있다(이익섭·이윤로, 2007: 302~303).

요도를 표시하는 숫자를 부여했다. 각 영역에서 달성될 수 있는 성과를 5점 척도(최선, 기대이상, 기대수준, 기대이하, 최악)로 나누어서 사전(5월)-중간(7월)-사후(10월)에 목표달성정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였다. 목표수립은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하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실제적이어야 하며, 개별면접을 통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집단프로그램과정기록(Process Recording)은 집단의 목표, 준비물, 과정,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개별 관찰사항(참여도, 구성원 간 관계, 하위목표에 따른 평가, 발달정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도자의 의도적인 개입과 평가, 과정평가, 구체적인 진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록하였다. 기록자는 집단과정 중 관찰자간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보조지도자 중 1인이 이중 기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과정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개입의 과정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내부 평가는 보조지도자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황성철, 2006), 평가틀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전달, 진행방법, 위기대처방안, 시간조절, 지도자와 성원과의 관계문제 등 평가 회의록을 내용분석 하였다. 셋째, 팀원관찰평가서는 각 팀의 보조지도자가 전 과정 동안 단계별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정의하고, 관찰하면서 구성원의 개별적인 변화양상을 평가함으로써 개입의 방향을 점검하였다. 넷째, 회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회기 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매회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집단성원으로 하여금 만족도 및 도움이 되는 정도, 집단응집력, 자신의 참여도 및 지지, 자기노출 정도, 모임의 만족도를 7~10개 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집단모임이 자기유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개념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가'하는 질문을 포함하였다(신영화, 1999: 46참조). 또한 전체프로그램 평가 설문지는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도움정도,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자기보고형 척

도로서 전체 프로그램의 종결 후, 실험집단 및 보조지도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는지, 주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인식하는지, 이후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질문하였다.

결 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 전 두 집단이 동질적인 상태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하고자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가족유형, 종교,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가출경험, 가출충동, 친한 친구의 가출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학력은 중학교 2학년으로, 성별의 경우 더미코드(Dummy Code)화 하였으며 실험집단은 남학생 9명(39.1%), 여학생 14명(60.9%)으로, 비교집단은 남학생 12명(54.5%), 여학생 10명(45.5%)로 나타나 성별의 분포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chi^2=1.074, p=.300$).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실험-비교집단 각각 18명으로, 종교의 경우 실험집단은 기독교(56.5%), 무교(21.7%), 불교(13%)순으로, 비교집단은 기독교(45.5%), 무교(40.9%), 불교(9.1%)순으로 분포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중(실험집단 87%, 비교집단 63.6%)수준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스퀘어(χ^2) 검증에는 각 셀 안에 빈도가 적어도 5 이상이 필요하고 5이하인 경우가 전체 셀에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되는 가족유형, 종교, 경

*목표달성률=(목표1가중치×성과수준+목표2가중치×성과수준)÷(목표1가중치×최대변화가능점수+목표2가중치×최대변화가능점수)

표 6.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N(%)

구 분		실험집단 (N=23)	비교집단 (N=22)	전체 (N=45)	카이제곱(x ²)	유의도
성별	남	9(39.1)	12(54.5)	21(46.7)	1.074	.300
	여	14(60.9)	10(45.5)	24(53.3)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18(78.3)	18(81.8)	36(80.0)	-	-
	한부모가정	5(21.7)	4(18.2)	9(20.0)		
	무교	5(21.7)	9(40.9)	14(31.1)		
	기독교	13(56.5)	10(45.5)	23(51.1)		
종교	천주교	2(8.7)	-	2(4.4)	-	-
	불교	3(13.0)	2(9.1)	5(11.1)		
	기타	-	1(4.5)	1(2.2)		
	상	1(4.3)	3(13.6)	4(8.9)		
가정의 경제수준	중	20(87.0)	14(63.6)	34(75.6)	-	-
	하	2(8.7)	5(22.7)	7(15.6)		
	잘하는 편	4(17.4)	9(40.9)	13(28.9)		
학교성적	중간수준	5(21.7)	6(27.3)	11(24.4)	4.327	.115
	못하는 편	14(60.9)	7(31.8)	21(46.7)		
	한 번 이상 있음	12(52.2)	10(45.5)	22(48.9)		
가출경험	전혀 없음	11(47.8)	12(54.5)	23(51.1)	.203	.652
	항상 생각	9(39.1)	7(31.8)	16(35.6)		
	2~3번 정도 생각	5(21.7)	6(27.3)	11(24.4)		
가출충동	1번 생각	9(39.1)	9(40.9)	18(40.0)	.319	.853
	친한 친구의 가출경험	18(78.3)	13(59.1)	31(68.9)		
친한 친구의 가출경험	있다	18(78.3)	13(59.1)	31(68.9)	1.928	.165
	없다	5(21.7)	9(40.9)	14(31.1)		

제수준의 경우 카이제곱 값으로 본 연구의 집단에 따른 차이의 유의미성을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빈도분석만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성적의 경우, 실험집단은 못하는 편(60.9%), 중간수준(21.7%), 잘하는 편(17.4%)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집단은 잘하는 편(40.9%), 못하는 편(31.8%), 중간수준(27.3%)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성적 분포상 통계적으로 볼 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x²=4.327, p=.115).

가출경험의 경우, 실험집단은 한번 이상에 12명(52.5%), 비교집단은 10명(45.5%)으로 나타나 가출경험의 분포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x²=.203, p=.652), 가출충동의 경우, 실험

집단은 '항상'과 '1번 정도'가 각각 9명(39.1%), '2~3번 정도'가 5명(21.7%)으로 비교집단은 1번 생각이 9명(40.9%), '항상'이 7명(31.8%), '2~3번 정도'가 6명(27.3%)로 나타나 오히려 실험집단이 가출충동의 빈도는 약간 높게 응답하였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x²=.319, p=.853). 또한 친한 친구의 가출경험의 경우, 실험집단은 '있다'가 18명(78.3%), 비교집단은 13명(59.1%)으로 친한 친구의 가출을 경험한 비율도 실험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x²=1.928, p=.165).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비

** 카이스퀘어(x²)검증 시 유의해야할 점은 사례수가 30보다 크면서 5미만의 기대빈도(Expected Frequency)의 셀이 전체의 모든 칸의 20%보다 적고, 모든 셀에 1.00 이상의 기대빈도가 있다면 척도에 관계없이 카이스퀘어(x²) 검정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우수명, 2007: 270).

* 친부모가정은 친부모와 사는 경우(실험집단은 14명, 60.9%, 비교집단은 15명, 68.2%)와 3세대 가정(실험집단은 4명, 17.4%), 비교집단은 3명, 13.6%)을 포함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은 그 외에 친부모와 사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범주화하였다.

표 7. 각 측정도구상의 집단 간 사전검사에 대한 t검증 결과

측정도구	실험처치(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자신에 대한 신념	실험(23)	19.609	5.097	-565	.575
	비교(22)	20.455	4.945		
자기유능감	실험(23)	15.435	3.116	-1.838	.073
	비교(22)	17.136	3.091		
내적통제소재	실험(23)	18.217	3.450	-.975	.335
	비교(22)	19.182	3.172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실험(23)	87.652	16.905	-.839	.406
	비교(22)	91.773	16.009		
가족응집력	실험(23)	28.391	11.040	-.723	.474
	비교(22)	30.636	9.708		
가출충동	실험(23)	33.174	12.565	-.422	.675
	비교(22)	34.773	12.839		

* $p > .05$

교집단은 성별, 종교,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친한 친구의 가출경험에서 약간의 빈도차가 존재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프로그램 전 집단 간 측정도구 상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종속변수로 설정한 6가지 항목 모든 변수에서 실험처치 전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라는 변수 외에 종속변수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두 집단은 개입 이전에 평가도구 상에서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집단의 선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고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사후검사 득점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가족응집력, 가출충동'에서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전체 측정도구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자신에 대한 신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19.609에서 사후검사 시 20.565로 0.956 증가($t = -1.364, p < .10$)한 반면,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전-사후검사 시 각각 20.455로 평균값이 동일하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자기유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15.435에서 사후검사 시 17.000로 1.565 증가($t = -3.527, p < .001$)한 반면,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전검사 시 17.136에서 사후검사 시 16.409로 0.727의 감소를 보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내적통제소재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

표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측정도구	집단 구분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2)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자신에 대한 신념	사전	19.609	5.097	-1.364 *	.093	20.455	4.945	.000	.500
	사후	20.565	3.883			20.455	5.422		
자기유능감	사전	15.435	3.116	-3.527 ***	.001	17.136	3.091	1.462	.079
	사후	17.000	3.015			16.409	3.432		
내적 통제소재	사전	18.217	3.450	-2.123 *	.022	19.182	3.172	2.347 *	.014
	사후	19.478	2.711			17.727	3.508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사전	87.652	16.905	-2.704 **	.006	91.773	16.009	.354	.363
	사후	93.913	16.517			90.955	18.659		
가족응집력	사전	28.391	11.040	-1.366 *	.093	30.636	9.708	2.507 **	.010
	사후	29.609	10.552			25.909	9.278		
가출충동	사전	33.174	12.565	1.906 *	.035	34.773	12.839	-1.186	.124
	사후	30.652	11.823			36.773	15.288		

*단측검증 : † p<.10, * p<.05, ** p<.01, *** p<.001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18.217에서 사후검사 시 19.478로 1.261 증가(t=-2.123, p<.05)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시 19.182에서 사후검사 시 17.727로 1.455의 차이로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t=2.347, p<.05)를 보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87.652에서 사후검사 시 93.913로 6.261 증가(t=-2.704, p<.01)한 반면,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전검사 시 91.773에서 사후검사 시 90.955로 0.818의 감소를 보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가족응집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28.391에서 사후검사 시 29.609로 1.218 증가(t=-1.366, p<.10)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시 30.636에서 사후검사 시 25.909로 4.727의 차이로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t=2.507, p<.01)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가족응집력'척도만이 점수에 따른 응집성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험집단은 사전 28.391에서 사후 29.60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척도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과잉분리(10-29점)와 분리(30-34점)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질적 유의성(Substantive significance)*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개입확대와 동시에 가족응집력 측정도구를 청소년과 부모 중 1인이 상호 측정함으로써 효과성 평가를 보완하는 것을 제언한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의 가출충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시 33.174에서 사후검사 시 30.652로 2.522 감소(t=1.906, p<.05)한 반면,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전검사 시 34.773에서 사후검사 시 36.773으로 2.000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이 비교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자신에 대한 신념(t=-1.364, p<.10), 자기유능감

* 이윤로(2007: 229)는 본질적 유의성(Substantive significance)이란 통계분석결과가 실천현장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표 9. 실험-비교집단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결과

측정도구	처리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변산원	TypeⅢ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도
		사후평균	표준편차						
자신에 대한 신념	실험	20.565	3.883	주효과(집단)	5.550	1	5.550	.564	.457
				공변량(사전검사)	535.950	1	535.950	54.483	.000
	비교	20.455	5.422	오차(Error)	413.157	42	9.837		
				합 계	19881.000	45			
자기 유능감	실험	17.000	3.015	주효과(집단)	38.486	1	38.466	8.317 **	.006
				공변량(사전검사)	253.061	1	253.061	54.714	.000
	비교	16.409	3.432	오차(Error)	194.257	42	4.625		
				합 계	13018.000	45			
내적 통제소재	실험	19.478	2.711	주효과(집단)	58.128	1	58.128	9.126 **	.004
				공변량(사전검사)	152.582	1	152.582	23.955	.000
	비교	17.727	3.508	오차(Error)	267.521	42	6.370		
				합 계	16060.000	45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실험	93.913	16.517	주효과(집단)	460.893	1	460.893	3.940 *	.050
				공변량(사전검사)	8399.250	1	8399.250	71.795	.000
	비교	90.955	18.659	오차(Error)	4913.531	42	116.989		
				합 계	398165.000	45			
가족 응집력	실험	29.609	10.552	주효과(집단)	318.590	1	318.590	7.766 **	.008
				공변량(사전검사)	2534.359	1	2534.359	61.780	.000
	비교	25.909	9.278	오차(Error)	1722.937	42	41.022		
				합 계	39189.000	45			
가출충동	실험	30.652	11.823	주효과(집단)	242.599	1	242.599	4.735 *	.035
				공변량(사전검사)	5831.167	1	5831.167	113.810	.000
	비교	36.773	15.288	오차(Error)	2151.914	42	51.236		
				합 계	59342.000	45			

*양측검증: * $p < .05$, ** $p < .01$

($t = -3.527$, $p < .001$), 내적통제소재($t = -2.123$, $p < .05$), 사회적 문제해결기술($t = -2.704$, $p < .01$), 가족응집력($t = -1.366$, $p < .10$), 가출충동($t = -1.906$,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응표본 t-검증 검증결과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상관관계수 ‘자신에 대한 신념’($r = .751$), 자기유능감($r = .760$), 내적통제소재($r = .596$), 사회적 문제해결기술($r = .779$), 가족응집력($r = .923$), 가출충동($r = .866$)가 높게 나타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covariates)으로서 통제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프로그램(독립변수)만의 효과를 밝히고자 공변량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각 측정치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사전조사가 사후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하

고자 사전조사의 영향을 통제하는 공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전체 측정도구의 사후점수에 대한 실험집단, 비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및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ANCOVA) 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유능감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 = 8.317$, $p < .01$). 즉 실험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은 17.000로서 비교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인 16.409보다 높았다. 이는 자기유능감이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

표 10. 개별목표분류 (N=23)

	목 표 분 류	사 례 번 호	인원(N)
개인	학교문제(출석, 성적 등)	1, 2, 4, 5, 6, 7, 8, 9, 10, 14, 17	11
	자기유능감	3, 11, 15, 19, 22, 23	6
차원	내적통제력	12, 16, 18, 21	4
	가출충동	13, 20	2
가족	가족응집력	9, 10, 11, 12, 18, 19, 22	7
	부와 의사소통	2, 4, 5, 6, 7, 17, 21	7
차원	형제·자매와 의사소통	13, 15, 16, 20, 23	5
	모와 의사소통	1, 3, 8, 14	4

이 내적통제소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9.126, p<.01$). 즉 실험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은 19.478로서 비교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인 17.727보다 높았다. 이는 내적통제소재가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3.940, p<.05$). 즉 실험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은 93.913로서 비교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인 90.955보다 높았다.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응집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7.766, p<.01$). 즉 실험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은 29.609로서 비교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인 25.909보다 높았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출충동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4.735, p<.05$). 즉 실험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은 30.652로서 비교집단의 수정된 사후평균인 36.773보다 낮았다. 이는 가출충동이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신념에서 실험집단의 사후평균은 20.565로서 비교집단의 사후평균인 20.455보다 약간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신념($F(1, 42)=.564, p>.05$)에 대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점수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을 공변량 분석 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대응표본 t-검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응표본 t-검증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자신에 대한 신념($t=-1.364, p<.10$)'이 공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t-검증 보다 더욱 정교한 공변량 분석 결과, 가출예방프로그램이 실험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비교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유능감($F(1, 42)=8.317, p<.01$), 내적통제소재($F(1, 42)=9.126, p<.01$), 사회적 문제해결기술($F(1, 42)=3.940, p<.05$), 가족응집력($F(1, 42)=7.766, p<.01$), 가출충동($F(1, 42)=4.735, p<.05$) 수준에서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목표성취척도(GAS)분석에서 개별목표에 대한 내용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개인·가족차원별 각각 4가지로 분류되었다. 개인차원목표로는 학교문제, 자기유능감, 내적통제력, 가출충동 순으로, 가족차원목표로는 가족응집력, 부, 형제·자매, 모와의 의사소통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다. 이를 프로그램 운영 시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부모교육 시 자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성원 간 중재역할을 하도록 개입할 수 있었다. 목표평가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해보면, 23명의 목표 달성률 평균은

56.1%로 다소 낮은 편이고 0부터 100%까지 매우 개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집단발달단계가 진행될수록 향상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 실천적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적인 유의성

본 연구에서는 가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전체 학생 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척도 상 동질성 검증에서도 동질집단으로 간주되어 실험처치 전 두 집단은 유사한 상태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 3】에 따른 【연구가설1, 2】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가출예방프로그램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연구가설 1】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비교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출관련 보호요인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첫째, 가출예방프로그램이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보호요인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종결된 후, 비교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가족응집력' 수준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2, 1-3, 1-4, 1-5】는 지지되었다. 즉,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후에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가족응집력' 수준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지만, 비교집단은 사후에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

력'차원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자신에 대한 신념' 수준에서는 사전사후검사 시 비교집단에 비하여 약간의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YES Project는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감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의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가족응집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가출예방프로그램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연구가설 2】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비교집단의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출충동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출예방프로그램이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의 가출충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가출예방프로그램에 참여 이전보다 종결된 후, 비교집단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비해 '가출충동'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YES Project는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감소하고 가출충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YES Project는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감소하고 가출충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임상 실천적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임상실천현장에서 일반화하기 위하여 전 기간 동안 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 1】

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실제 운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공요인을 ‘집단 구성원,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식, 보조 지도자의 교육·훈련, 지원,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욕구평가를 실시하고, 가출예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가출예방프로그램의 집단 구성원은 가출충동 또는 1~2회의 가출을 경험한 고위험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김동기·홍세희(2007)는 한국청소년이 최초 가출행동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중학교 1~2학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밝혀내어, 이는 가출충동을 1회 이상 경험한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또한 집단의 규모(size)는 각각 24~25명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이는 소수집단으로 선정할 경우 학생들 간의 낙인효과가 매우 클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조건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회기 최적의 세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배치함으로써,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합(integrated)적으로 설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첫째,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즐거움(fun), 프로그램의 순서나 시간배분 계획은 고위험군 성원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융통성(flexibility), 실제 가출충동상황에서 의사

소통이나 문제해결기술 등 대처전략의 적용가능성(application feasibility)을 고려하였다. 또한 회합의 길이는 너무 길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회기는 12회기로, 각 회기는 약 2~3시간 정도가 적절하며, 주기는 약 6개월 동안 2주 1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동시에 부모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자녀 뿐 만 아니라 부모까지 상호 교육함으로써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가족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 시 면담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녀의 가출충동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학습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개별개입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별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의 회기 중간에 반드시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박민선(2008)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가출빈도와 비행또래수의 변화연구에서, 가출횟수 초기치와 비행또래 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유의하게 나타나 개별개입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하였다. 모든 청소년의 가출요인은 지극히 개별적이고, 단일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가정·학교차원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준비단계에서부터 각 성원의 개별적인 가출 위험요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사정 및 적절한 개입의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개별화된 개입접근전략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련받은 보조지도자가 집단프로그램 일정 이외에도, 전화, 온라인, 면담 등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요인의 개별개입을 실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집단 구성원 간 특성(사회인구학적 배경, 가출충동 요인 및 수준, 집단프로그램의 참여동기 및 태도의 동질성, 대화형태, 집단발달형태, 구성원의 태도

* 정혜경(2000)은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개인·환경차원 각각의 예측요인은 가족기능들 간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고,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의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나 가치, 집단의 규범, 역할구조 등)의 다양성 때문에, 준비단계 및 오리엔테이션단계에서 신속한 사정을 토대로 5개 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보조지도자와 매칭(matching)하여 하위집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넷째, 개입방식은 강의위주의 일방적인 교육 뿐 만 아니라, 모델링, 역할극, 소집단토론, 동영상이청, 실험(WeCC촬영) 등 시청각자료, 체험도구 및 기법을 활용한 참여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성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보조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지원,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인력의 질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보조지도자 선발 시 전문적 자질·지식·기술을 고려해야한다. 이에 선발기준은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고, 주지도자와 의사소통이 잘되고 서로 지원해주는 관계(Clinebell, 1978; 심창교, 2007: 46)의 형성이 가능하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청소년상담 전공 대학생이다. 보조지도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초기단계부터 개별 팀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특성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중도탈락을 대비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참여 및 변화 동기를 유발하는 직접적·간접적인 촉진자로서, 팀 내 역동을 활용하여 친근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른 팀과 경쟁을 자극해야한다. 보조지도자 교육·훈련 차원에서는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지식·이해·가치, 상담기술의 학습, 리허설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 및 회기별 사전준비회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차원으로는 식사지원, 감사선물, 수료증 제공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감독차원에서는 매회기 평가회의, 동료 및 개별 수퍼비전을 통하여 세부내용, 지도방법 등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차후 프로그램의 방향성 모색과정을 수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가출충동의 예측요인 인 위험요인 및 가출충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다각적인 욕구조사를 토대로 하여 가출예방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청소년 가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가출청소년 대상 재 가출 예방의 사후대안적 치료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왔지만(엄명용, 1996; 이익섭·김근식, 1999; 이상균, 2005; 박민선, 2008: 112), 본 연구는 가출 고위험 군으로 선별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셋째,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통하여 선별된 동질의 가출 고위험군 비고집단을 할당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특성상 약 6개월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실험집단의 변화가 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개인 내적 성숙(mature)에 의한 것인지 등 내적타당도의 저해요인을 통제하였다. 넷째, 개입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련의 단계와 활동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임상 실천적 평가를 토대로 청소년 가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예방프로그램의 실천적 효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일반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교차측정(triangulation)을 통하여 타당도를 해치는 요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뿐 만 아니라 임상 실천적 평가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역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청소년 가출은 그

* 최근 국내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강의, 시청각교재, 강사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작용,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체험적 학습방법을 강조하고 있다(이민화·임지연·안지선, 2004).

특성상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추적연구를 통하여 실제 가출행동의 발생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로 종속변수인 가출예방은 잠재적·예방적 차원에서 보호요인 강화 및 가출충동수준 감소로 조작화하고, 단기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follow-up) 및 추적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research design) 중 패널연구(panel study)를 통하여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을 선별하고, 동일한 청소년들이 초기 성인기로 성장하는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할당 시, 선별검사, 교사의 관찰평가 및 추천, 부모의 참여동의 등 다각적인 과정을 시도하였으나, 참여의 최종 결정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실험집단의 구성자체가 성장의 의지가 높은 청소년이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상자 선정의 오류"라는 내적타당도 위협요소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타당도의 위협요인인 자발성 이외에는 두 집단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현실적인 한계는 정당화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많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가출관련 위험요인, 특히 보호요인을 밝힌 연구가 미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등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요인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여러 요인들 간의 관련성 및 가출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예언변인의 규명이 필요하므로, 기존 가출연구들을 토대로 다 체계 변수들을 구성하고 전국단

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 및 보호요인을 검증해내고 가출행동화과정을 밝혀내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청소년의 가출은 다요인적 특수 분야로 개인·가정·학교라는 복합적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되는 결과이므로 생태학적 발달관점(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의 가출예방모델에 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무작위할당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실험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비교집단에 할당된 가출 고위험군의 개입을 유보한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측과 협조 하에 선착순으로 실험집단을 모집하고 비교집단을 대기통제집단(waitlisted control group) 방식으로 할당하되, 실험이 종결된 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도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보호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사전 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성래 (2003).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분석 -가출 경험집단과 가출미경험집단 비교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12).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동기·홍세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18(3), 267-294.

* 정혜경(2000)은 가출충동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출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규석·Denise E. Bronson(2000)은 미국 전국교육조사 16,228명의 자료(1988)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학교 중퇴에 관한 다체계모형을 검증한 바 있으며, 이는 학교중퇴 고위험군 학생의 발견과 효과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 지금까지는 가출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판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 차원의 변인으로 가출의 위험요인을 설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지창희, 1987; 김혜영, 1990; 권윤아, 1997; 박선희, 1999; 신강숙, 1999; 정우영, 1999; 김태익, 2000: 2).

- 김민정 (1999). 여학생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정 (2004).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적응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3). 가출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8), 99-121.
- 김지현 (1996). 소녀가출의 원인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 (2005). 가출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63-90.
- 남미애·홍봉선·양혜진 (2007).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남세진, 조홍식 (1998).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영옥 (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5(5), 156-184.
- 민가영 (2007). '신빈곤층' 가족 십대 여성의 가출 재생산 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민선 (2008). 청소년 가출빈도와 비행 또래수의 변화추정 및 두 효과 간 인과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2), 111-139.
- 박선희 (1999). 청소년의 환경, 자아개념, 감각추구 동기, 및 가출충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자 (1999). 가출 청소년의 MMPI 특성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 예측 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 요인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0(2), 81-99.
-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4), 765-778.
- 박현선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
- 배문조, 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가족·학교환경·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서울YMCA (1998).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 YMCA청소년사업부.
- 신민향 (2001).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창교 (2007). 노년기 부부성숙 프로그램 개발: 개입연구 방법의 적용.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엄명용 (1996).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한국사회복지학, 42, 254-289.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수명 (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인간과 복지.
- 유성경, 안희정, 오익수, 박한샘 (1999). 청소년 가출·재가출예방 부모용지침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 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옥현 (2007). 가출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5). 가출·비행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 전략의 모색. 사회복지리뷰, 10, 87-112.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형 (2006).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 (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시연, 최윤정, 권현진 (2006).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포커스집단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319-346.
- 나동석, 이용교 역 (1991). 가출청소년연구-청소년과 부모의 대처에 관한 탐색적 연구. Roberts, Albert R. (1982). Stress and Coping patterns among adolescent runaways: Journal of Social Research 5: 15-17: 한국청소년개발원. 1(1): 9-142.
- 이용교, 남미애, 안경순 (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유경 (1998). 중학교 남학생의 가출 특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내 남자중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 김근식 (1999). 청소년 비행화 과정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비행화 예방집단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381-405.
- 이익섭, 이윤로 (2007). 사회복지 조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정혜경 (2006). 여자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3(3), 161-179.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방지를 위한 지지 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이해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운정 (1997). 여성청소년의 가출태도 및 예방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여중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 Denise E. Bronson (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 모델 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회, 9.
- 정우영 (1998). 스트레스 및 가족응집성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권혜진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정신간호학회지, 10(1), 76-86.
- 조경호 (2004).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학래 (2000). 청소년 가출의 예방 및 개입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 355-388.
- 지승희, 이은경 (2001).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 I. 청소년상담연구, 91.
- 최선희 (2004).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가출충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2000). 청소년들의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이순 (2002).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13-428.
- 최태은 (2007).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통계개발원 (2008). 2008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하순인 (1997).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2001). 사회적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1), 1-21.
- 한상철, 이수연 (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한상철, 김남선, 이수연, 이미연, 최성열 (2005).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
- 홍순혜, 이시연 (2007). 개입연구. 청목출판사.
- Bandura, A., G. V. Caprara, C. Barbaranelli, M. Gerbi-no, and C. Pastorelli. (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4, 769-782.
- Bogenschneider, Karen. (1996).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Theory for Building Prevention Programs, Policies, and Community Capacity to Support Youth. *Family Relations* 45(2), 127-138.
- Constantine, N., and B. Benard. (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 122.
- Finkelhor David, Gerald Hotaling, and Andrea Sedler. (1990). *Missing, Abducted, Runaway, and Throwaway Children in American- First Report: Numbers and Characteristics National Incidence Studies*. the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amill, S. K. (2003). Resilience and self-efficacy: The importance of efficacy beliefs and coping mechanism in resilient adolescents. *Colgate University Journal of the Sciences*. 35. 115-146.
- Kipke, M. D., F. Raymond Palmer, Steven Lafrance, and Susan O'Connor. (1997). Homeless Youths' Descri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Youth and Society* 28(4), 415-431.
- Luthar, S. S.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iller, Alison B., and Christopher B. Keys. 2001. Understanding dignity in the lives of homeless pers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 331-354.
- Novotny, Kristin M. (2000). Experts in their own lives: Emphasizing client-centeredness in a homeless program. *Policy Studies Journal*. 28(2), 382-402.
- Podschun, Gary D. (1993). Teen Peer Outreach-Street Work Project: HIV prevention education for runaway and homeless youth. *Public Health Reports*. 108(2), 150-156.
- Pollard, J. A., J. D. Hawkins, and M. W. Arthur.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Quilgars, Deborah, Anwen Jones, and Nicholas Pleace. (2005). Safe Moves: Piloting prevention services for young people at risk of homelessness. *Housing, Care and Support*. 8(1), 4-10.
- Unger, J. B., M. D. Kipke, T. R. Simon, C. J. Johnson, S. B. Montgomery, and E. Iverson.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Vissing, Yvonne. (2003). The Yellow School Bus Project: Helping Homeless Students Get Ready for School Phi Delta Kappan. 85(4).

Watson, D. W., L. Bisesi, and S. Tanamly. (2004). Substance Use HIV Intervention Program(SHIP): A School-Based Indicated Prevention Model for Juvenile Offenders in the Alternative School Setting.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5(3), 236-260.

한국청소년상담원(2008.3).

http://www.kyci.or.kr/parent/problem/deli_06.asp.에서 검색
미국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2008.3).<http://ojjdp.ncjrs.org/programs/index.html>.에서 검색.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16.

Intervention Research on Runaway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k Runaway Group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 on Reinforcement of Protective Factors

Jin-Ah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icacy of an youth runaway prevention program, the Youth Empowerment Start Project (YES Project), which was develop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ve factors among high-risk runaway youth. Using the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first, the list of risk factors which are probable to increase the odds of runaway impulse, was used as a measure to screen high-risk runaway youth, and second, a runaway prevention program of protective factors, which buffer the effects of risk factors,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16 Personality Factor II and instructor observation evaluations, 45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8th grad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23 were allocated to experimental group, and 22 were to comparative group.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COVA were applied for hypothesis testing and to analyze statistical verification. In addition, qualitative analysis of a goal-attainment scale and a process record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lf-efficacy', 'locus of internal control',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family cohesion' when compared to the comparative group; Seco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elf-conviction'; Lastly,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significant decrease in 'Runaway Impulse' when compared with the comparative group. Overall, the YES Project appeared to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which reduce runaway impulse levels, and ultimately to prevent youth runawa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word : High-Risk Runaway Group, youth, The Runaway Prevention Program,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Needs assessment

